

# 가정의 가치 불교에 묻는다

## 제1차 보현도량 도피안사 구국구세 대법회

-더불어 살아야 할 삶[共同體]을 위한 불교적 패러다임[緣起와 中道]-

5월 1일

미산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부처님은 가정과 부부를 어떻게 보는가

●나는 누구인가?—연기와 중도로 본 나의 존재  
●초기경전에 나타난 바람직한 가정과 부부—선경경을 중심으로 ●수행의 터전으로서 가정—공존지수(NQ) 높은 가족공동체의 삶



5월 8일

서명원 신부 (서경대 교수)

서양인은 한국의 가정을 어떻게 보는가

●서양의 가정과 한국의 가정  
●서양인이 본 보존해야 할 한국적 가치  
●현주교 사제가 본 불교의 출가공동체(佛家)



5월 15일

안숙선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판소리 '불타전' 중 부처님 탄생부분 음성공양

●부처님의 생애 중, 강생 편을 판소리로 공양  
●불속법요식 '판소리 불타전' 장공양(唱奏)



5월 22일

조희금 (대구대 교수)

오늘날 한국가족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국가족의 실태—저출산, 고령화, 이혼율의 증가와 의미  
●과거의 가족—보존해야 할 전통적 가치는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살려갈 것인가?  
●미래의 가족—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나?  
●건강가정기본법을 중심으로 본 바람직한 가족정책의 방향



5월 29일

옥선화 (서울대 교수)

모두다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을 어떻게 볼 것인가—공동체의 일원 재혼가족(12%), 한 부모가족(15%), 맞벌이가족(60%), 국제결혼가족(10%), 기러기가족(일명, 분가가족, 소년소녀가장가족, 어려운가족)에 대한, 환자, 중독증, 가정폭력, 대외부족이 나 있을 때



5월 1일~7월 3일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도피안사 대웅전

### 도피안사 · 현대불교 공동주최

다함께 더불어 살아야 할 인류의 바른 삶을 위하여 우리 불교인들이 펼치는 구국구세(救國救世)의 원리와 그 방향. 이 시대 주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불자들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대비구세의 서원과 지극한 불행(佛行)을 운眸에 담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현실의 문제를 불교로 풀어내어 불교적인 관점과 시각으로 바라보므로 원만한 문제해결을 이룩하

는 것이며, 또한 우리는 거기서 살아 움직이는 활발발한 불교를 보고 배우게 된다. 이같이 삶 속에서 불교를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는 이 일은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삶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현대인에게 빛과 같은 일이 될 것이다.

주 5일 근무로 주어진 자기성숙의 시간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우선 모든 공동체의 가장 기본토대인 '가정의 가치'를 제1차의 주제로 선정했다. 이 일은 우리들 공동체의 모든 문제를 불교가 깨안아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근원적인 방법이 되고 길이 되며, 이제 그 시작이 될 것이다.

### 우리에게 가족과 가정은 무엇인가 - 새로운 '가정의 가치'를 찾아서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 아니,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다. 가정이 더 이상 공존과 상생의 안식처가 되지 못하고, 가족이 더 이상 개개인의 의지처가 되지 못하고 파편화 되고 있다. 동체대비의 실천장이 되어야 할 가정이 권리 다툼의 장(場)이 되고, 가족관계가 서로 타인처럼 무관심하거나 치열한 이해타산의 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전통적 가치는 붕괴되고 새로운 가치는 아직 등장하지 못한 채, '전통적 가치' 중에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고,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근본이었던 가정이 표류하고 있다.

급히 우리를 '가정의 가치'를 다시 살려내거나 새로 찾아야 한다. 이대로 두면 도미노현상이 일어나 그나마 평범한 가정조차도 붕괴될지 모른다. 모든 공동체의 근본인 가정이 살아야 사회가 살아나고 국가가 살아난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살려야 할까? 인류는 이제 살든 못든 문명의 전환점에서 있다. 여태껏 살아온 삶의 형태나 관습을 떠나, 모든 것을 없는 것으로 돌려본 채, 인간 삶의 근본인 관계(緣起)와 역할(中道)을 통해서 처음부터 다시 찾아보자. 기왕 새로 해야 할 일이라면 좀 더 근원적인 곳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싶어서다. 그러나 인간에게 분명한 사실은 '더불어 사는 삶'이다. 이 토대 위에서 '가정의 가치'를 확립하는 것이 우리시대의 가장 긴급한 구국이며 구세다.

“불자형제들, 여기 보현도량 도피안사 오십시오. 함께 모여 가슴을 열고 모두의 길을 찾아 봅시다. 분명 길이 열릴 것입니다. 불교는 가정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가정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근본이며 보살행의 터전이고 그 출발지이기 때문입니다.”

구국구세(救國救世)란 부처님의 본원(本願)인 대비구세로부터 비롯되어 대승불교 파사현정(破邪顯正)의 보살사상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불교 특유의 반야바라밀다 신앙에 의한 보국안민(輔國安民)의 전통으로 자리잡았다. 삼국시대와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조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불교를 가혹하게 탄압한 조선조에서도 그 정신은 불타올랐다. 특히 일제강점기 융성 조사는 대각교를 통한 독립운동으로 줄곧 구국구세에 몸 바쳤으며, 조사의 법을 이은 동산 대사는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재건하므로, 소천 선사는 6·25전쟁의 고난 속에서 '금강경독송구국원력'을 만들어 각기 그 정신을 이어 나갔다. 반면에 이어진 이 전통을 광택 스님이 물질문명에 사로잡힌 현대인을 구제하고자 펼친 불광(반야바라밀다)결사운동으로 계승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교통편: 매 번, 서울지하철 사당역 8번 출입구 국민은행 앞에서 전세버스가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6월 5일

정현숙 (상명대 교수)

부부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관계(緣起)와 역할(中道)로 본 부부-결혼의 의미와 가치  
●가족의 중심으로서 부부의 역할분담과 공동의 역할  
●가정경영-부부간의 협력(경제, 종교, 취미, 기타 등)



6월 12일

고성혜 (자연인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연구원)

부모와 자녀관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 청소년 자녀를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한 시각-불교적인 관점  
●청소년 자녀의 발달적 특성과 고민  
●청소년 자녀와의 거리 좁히기



6월 19일

최혜경 (이화여대 교수)

부모와 자녀관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 성인자녀와 노부모

●노년기 부모의 발달적 특성  
●노년기 부모의 마음 읽기  
●부부의 노년설계-수행생활을 중심으로



6월 26일

김의숙 (방송대 교수)

불자가족의 가정관리

●육구와 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불교적 관점에서 본 가정관리  
●즐거움 살,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길



7월 3일

최충동 (한별정신병원장)

비람직한 가정과 부부상

●무아의 실천(장태)-보살행의 자인자(自任者)  
●이상사회로 가는 길-불국토 성취(供同善道求)  
●모두의 목표, 모두의 성공-인류의 공동번영



보현도량 도피안사 ■ 주소: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1178-1(456-893) ■ 전 화: (031) 676-8700  
 ■ 전 송: (031) 676-8704 ■ 홈페이지 http://www.dopiansa.or.kr ■ E-mail: dopiansa@kornet.net

##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와 의정등록 다수 보유업체◆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공단등 (비단등)

종 등

팔모조립등

황금등

팔모접등

만월등

※ 만월등, 종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031) 792-6288, 794-4055 / FAX 031) 794-6288  
 찬덕홈페이지: www.chanduk.com 한글홈페이지: 찬덕연등  
 e-mail: chanduk21@hanmail.net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공고: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